

연예인 총살 사건의 핵심은 '정치문제'일 가능성 (2) 적발명목이 '음란비디오'에서 '한국영상물'로 변질 (이시마루 지로)

◇'엄벌에 처한다'는 포고문 전문 입수

8 월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불순 녹화물' 단속의 폭풍이 불고 있다. 평양에서 벌어진 '연예인 집단 총살'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간부급 처형을 비롯해 대대적인 중형처분이 반복되고 있다. 적발 당초에는 '음란 비디오' 단속이 명목이었지만, 그 후 양상은 완전히 바뀌어 한국 정보 유입의 차단이 그 이유가 됐다. 북한 내부에서 전해온 정보를 보고 한다. 또한 9 월에 발표된 포고문 '불순출판 선전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의 전문을 게재한다. (이시마루 지로)

'음란 비디오'단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평양에서 보안부(경찰) 간부들이 내려와 한국 영상물 검열을 하고 있지만, 그 표적은 일반 주민이 아니라 (지역)간부들이다. 가택 수색도 시작되었다. 평소 한국 영상물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간부들. 지금까지 (보복이)무서워서 보안원도 간부들에게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하고 있다"

8 월 23 일 북한 북부 지역인 양강도에 살고 있는 취재 협력자 A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의 개요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의 유입에 대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고 단속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필자도 이번 단속사업에 대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단속사업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북한 내부로부터의 전화 보고가 있는 직후, 북한 각지에서 연속으로 총살형을 단행하는 등 '불순녹화물' 단속의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세계의 이목을 모은 것은 한국의 조선일보가 8 월 29 일에 소식통을 인용해 "20 일 평양에서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을 포함한 예술인 10여 명이 '음란 비디오'를 촬영, 판매한 죄로 총살되었다"라고 보도하면서부터다.

이때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이 '연예인 총살 사건'의 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함경북도에 사는 취재 협력자 B 씨는 8 월 30 일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다.

--평양 연예인 총살에 대해 들었는가?

"연예인 25 명이 '음란 비디오'를 만들어 중국에 판 죄로 총살됐다고 아는 보안원(경찰)들로부터 들었다" (이후 그는 총살된 것이 10 여 명이라고 보고해 왔다.)

--함경북도의 상황은 어떤가?

"(불순녹화물 적발에 관여한)보안원들의 말에 의하면, 새별군○○지구에서는 40 세대가 TV 와 녹화기(재생기)를 몰수당했다. 어떤 집에서는 '기생의 하루'라는 '음란 비디오'를 봤다는 이유로 가족 전원이 묶여 끌려갔다고 한다"

--단속은 보안원이 담당하고 있는가?

"김정은의 '817 방침'(방침은 김정일의 구두 지시 및 사인. 앞의 번호는 날짜를 의미한 것으로 추측)이 나와, 회령시에는 평양에서 보위부(비밀경찰) 27 국 사람들이 검열을 위해 내려왔다. 보안원들과 밤낮없이 여기저기 집을 수색하고 USB 메모리를 조사하고 있다. 뭐, 적들(한국)이 1 만 개의 USB 메모리를 몰래 우리나라에 침투 시켰다고 하는데..."

보위부 27 국은 비밀경찰 조직에서 도청이나 전파 탐지, 디지털 기기의 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음란물' 단속이라면 그것은 풍기문란 문제이지만, 정치문제를 다루는 '정치보위부'가 전면에 나선 다는 것이다.

또한 B 씨는 평양 연예인 총살사건에 대해,
"평양의 연예인들이 당한 것은 성교 장면 등을 직접 촬영한 음란한 영상이 USB 메모리에 들어있던 것이 (촬영, 유출 사실이)들통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에 유출한 것을, 적(한국)이 들여 보냈다는 것이다"라고 소문의 내용을 전했다. 자작 외설 비디오가 외국에서 들어와 들켰다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소문이다.

협력자 B 씨는 보안원이 말했다는 '817 방침'의 구체적인 단속 의도는 모르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방침'은 김정은의 직접 지령을 의미한다. '817 방침'이 실제 내려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최고도의 정치성을 갖는다. 보위부도 보안부도 최우선으로 집행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보면 '음란 비디오'단속만을 위해 일부러 '방침'이 나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불순선전물' 단속에 대한 포고문 나와

9 월 중순, 북한 각지의 취재 협력자로부터 거의 일제히 '불순선전물'을 단속하기 위한 '포고문'이 나붙었다는 정보가 전해져 왔다.

앞서 말한 B 씨는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고문 하달을 위해 인민반회의가 열리고, 보안서(경찰서) 사람이 와서 '과거에 나쁜 것을 본 사람은 자수하라'라고 통보했다"

우리 취재팀은 B 씨에게 '포고문'의 입수를 의뢰했다. 공교롭게도 그는 사진기를 갖고 있지 않아, 실제 포고문을 베껴 쓴 뒤, 며칠 후 전화로 전문을 읽어 주었다. '포고문'은 철도의 역 구내, 거리의 게시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눈에 띄는 곳에 붙여진다.

이상하게도, 배포된 '포고문'의 공포일은 2004년 12월 25일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B 씨는

"10년 전의 '포고문'이 다시 내려온 것은 우리 인민의 경각성이 와해 된 것으로 다시 한번 한다는 것이다"라고 보안원이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양강도에 배포된 '포고문'도 공포 날짜가 2004년으로 내용도 마찬가지로 다른 취재 협력자도 전해왔는데, B 씨가 구두로 전해온 '포고문'과 같은 것이었다.

공포한 기관명은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로 되어있지만, 2004년 당시에는 내각 산하의 '보안성'이었으므로, 다시 공포일에 맞춰 기관 이름만은 현재의 '보안부'로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포고문'에 있는 '불순 출판선전물'이란, 요컨대 한국의 책, 잡지, 전단, 비디오 등이다. 또한 각지의 현장에서 적발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USB 메모리이다. 일부러 10년 전의 '포고문'을 다시 하달한 것은 한국의 영상물에 대해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전국의 통제에 나섰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8월 초 단속이 시작되었을 당시, 김정은 정권은 그것을 '음란 비디오'단속으로 축소시켜 착수할 방침이었던 것은 아닐까. (계속)

9월에 재공포한 포고문. 그 후, 각지에서 '불순녹화물'관련한 총살형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

포 고

불순출판선전물을 몰래 보거나 유폐시키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오늘 위대한 선군의 기치 밑에 승승장구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으며 사상정신적으로 변질되고 돈에 환장이 된 일부 불순한 자들과
적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밀려들어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폐시키는 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전체인민이 사회주의결사 수호정신과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우리 정치사상진지를 허물어버리려는 적들의 악랄한 책동을
각성있게 대하여 그것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을 벌려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위임에 따라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폐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자.
2. 불순출판선전물을 몰래 보고나 듣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3. 불순출판선전물을 유폐시키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4.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폐시키는 자들의
범죄사실을 감 취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5.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폐시키는 자는 모두
자백하라
6. 감독통제기관 일군들은 물질, 정실, 앞면관계에 말려들어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는 자들을 비호 두둔하거나 눈감아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7. 법기관들이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폐시키는

행위를 조사 취급하는데 대하여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압력을 가하면서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말라

8. 모든 국민들은 높은 정치적 계급안목을 가지고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포시키는 자들을 예리하게 살피고 해당기관에 즉시 신고하라

9. 이 포고를 어긴자는 직위 소속에 관계없이 가차없이 체포, 취급하여 형사책임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처벌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주 추방하며 위법행위에 이용된 수단들을 몰수한다.

10. 이 포고는 모든 기관, 무역, 군수, 특수기관(특수기관포함)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다 적용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

주체 93(2004)년 12 월 25 일

사진설명

(참고사진)평안북도 신의주시 역전에서 큰 짐을 들고 역내에 들어가려고 하는 주민들을 '질서유지대원'들이 끌어내고 있다. 최근 '불순녹화물' 적발을 위한 짐 검사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한다. 2012 년 11 월 북한 내부협력자 촬영 (아시아프레스)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유포시키는 적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실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당원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자료. 발행처는 '조선로동당 출판사(2005년)'

'불순녹화물' 밀매 및 유포에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리준 입수)